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7월 16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 16.(월) 오전 9:30분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7. 15. (일)	담당부서	통상정책총괄과
담당과장	박정성 과장(044-203-5620)	담 당 자	신현우 사무관(044-203-5623)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 개최

- 통상현안, FTA 추진계획, 신남방정책 등 통상전략 집중 논의
- 김현종 본부장, "자동차 232 핵심인사 설득, 미중무역분쟁을 혁신 기회로..."
"현재 세계시장 77%와의 FTA 네트워크 ⇒ 수년내 90% 시장으로 확장"
"인도시장 교역 500억 달러, 아세안 2000억 달러 향해 나간다."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16일(월)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문기구(근거 : 통상절차법 제21조)

○ "미국 **자동차 232조**", "**미·중 무역분쟁**" 등 핵심 통상현안과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신남방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18. 7. 16일(월) 08:00~09:30 /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룸
- **참 석 자** : (산업부) 김현종 본부장, 통상차관보 등 / (자문위원) 19명
- **논의안건** : ① 대미 통상 현안 등 대응 방향, ② 주요 FTA 추진 계획, ③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

□ **김현종 본부장**은 **모두 발언**(전문 별첨)을 통해 **미국 철강 232조 조치**를 **기점**으로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들은 **관세 부과와 보복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고,

○ **미국의 자동차 232 조사**와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가 세계 통상질서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부각**되고 있으며,

○ 미국의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일본**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추격, 지역패권 경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 김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232조 타결로 **미국과의 관세 보복 소용돌이**에서는 **한발 빗겨나** 있지만,

○ 국제 **자유무역의 퇴조**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로 성장해 온 국가들에게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통상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미국 **자동차 232 조사**,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전개상황과 영향을 판단하면서, **철저히 실리**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자동차 232조**에 대해서는 미국 의사결정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이번주** 현장설득 활동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 미·중 무역 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 본부장은 이에 따라 **대한민국 통상전략**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과거 80년대 **미국과 일본 간의 통상분쟁**으로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가 주춤했던 틈새를 타고 우리의 **자동차, 반도체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성장**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 통상환경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고 **과감한 도전**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함

□ 김 본부장은 **통상마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출상품과 서비스 창출을 위한 새로운 혁신기업 창출을 통상팀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 가격으로 경쟁하는 **범용제품**은 **통상공세의 위험**에 항상 노출됐다.

○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기술 집약형 고부가 대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국제 **통상마찰의 무풍지대**로 나아갈 수 있다.

-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은 서비스 분야를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국제 시장을 상대로 하는 **혁신형 기업들이 창출되고 세계무대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통상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세계 **시장개척 전주기**(바이어 발굴 → 무역금융 → 마케팅 지원 등)에 걸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테마섹(Temasek) 등 **주요국 국부펀드**들의 우리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협력채널을 확대·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신흥국**으로 과감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자원은 중동, 핵심기술은 일본에 의존하면서 주요 2개국(**G2**) **시장의 성장**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 국제적인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메르코수르** 등 **신흥시장**에 **새로운 수출의 길**을 찾아야 한다.

- 신흥국과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함께,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 수준인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수년 내 **약 90% 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 국가별 맞춤형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기업들의 **현지시장**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을 **대폭강화**

□ 모두 발언에 이어 산업부는 "**대미 통상현안 등 대응 방향**",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계획**",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발표했다.

【 대미 통상현안 등 대응방향 】

❶ 미국 자동차 232조

- 미국 상무부 공청회(7.19~20) 계기 본부장을 대표로 하는 **범부처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기타 대미(對美) 고위급 협의 계기(수시)를 활용한 **주요인사 현장 설득활동 추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으로 자동차 관련 미국의 우려 이미 반영, 앞으로의 **한미 경제협력**의 **안정적 유지·발전** 필요성 강조했다.

❷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 원칙적 합의('18. 3월) 이후, 분야별 **문안협의**를 **사실상 완료**했으며,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필요한 **국내 절차** 추진예정이며

- 우리는 향후 **영향평가 완료 후 서명**을 거쳐 **국회비준동의 요청 예정이다.**

-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ITC) 영향평가 완료('18. 6월) 후 **미국 의회협의 절차진행 중이다.**

❸ 미중 통상분쟁

- **범부처 비상대응체제 구축**하고,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응반**을 상시 가동하여 수출시장 영향 모니터링 및 수출애로 발굴·해소 노력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對中) **2천억 달러**에 대한 **10% 추가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종별 단체**, 산업연구원(KIET) **등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분석작업(우리 수출, 업종별 파급효과, 대중 투자기업 등) 착수했다.

- **미중 시장의 수입선 전환** 등의 기회 발굴, 아세안·인도·러시아 등 **전략시장**에 대한 **수출 마케팅** 집중, 수출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계획 】

❶ **(중국)**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통해 **무역 통상환경 안정화** 및 **새로운 경제협력분야 발굴**

-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금년내 **협정문 협상 최대한 진전**, 대내외 의견수렴 기반으로 조속 시일내 시장개방협상 개시 노력

-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진전** 토대로 **시장개방 협상개시** 등 **논의진전** 도모

❷ **(신북방·신남방) 주요 2개국**(G2) 의존도 완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유라시아·아세안(ASEAN)·인도** 등 시장다변화 추진에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활용**

- **(한-러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상)**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 올해 안 **완료 추진**과 상품을 포함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노력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올해 **실질타결을 목표**로 협상 가속화, 주요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이익을 확보** 노력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협상) 금번 조기성과 패키지 타결을 국면전환**으로 향후 협상 전반에서 **폭넓은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추진**

❸ **(잠재시장 개척)** 거대시장이나,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중남미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경쟁국인 중·일 대비 시장 선점**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14년만에 협상개시(5월), 하반기 중 1차 협상 개최

-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7월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멕시코) **계기,** 우리 측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관련 **협의 예정**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국민 의견수렴, 동향 분석**(미국 재가입 여부 등) 등을 토대로 **조속 시일**내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측과 예비협의 추진

【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 】

○ **기본방향 :** 아세안·인도를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협력 파트너로 격상

- 경쟁국과 차별화된 3P(사람·평화·상생번영) 전략을 통해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 구축

○ **목표 :** 2020년 **한·아세안 교역 2천억불 달성**
(2030년 한·인도 교역 500억불 달성)

○ **전략 및 과제**

❶ 대(對) 아세안·인도 진출 기업지원 강화

- **(유통)** 현지 진출 **한국계 유통기업 활용** 확대, 국가별 **유망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통해 현지 유통채널 안착 지원
- **(자금) 인도**(100억불), **베트남**(120억불) **금융패키지**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메트로, 도로, 에너지 등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
- **(투자)** 국내 유망기업과 **국부펀드**(싱가포트 테마섹 등) 간 **네트워킹, 기업간 협의채널 정례화·내실화** 등을 통해 투자촉진 지원

❷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협력 추진

국 가	방 향	주요 내용
인도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미래비전전략그룹을 통해 인공지능, 전기차, 헬스케어, 에너지신산업 공동 R&D 등 추진
베트남	제조업 역량 강화 지원	소재부품 기술협력(섬유·기계·전기전자·자동차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TASK 센터 구축
인도네시아	기간산업 협력 강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투자 및 협력 확대
미얀마	산업화 기반 구축 지원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미얀마 정부 내 한국기업 지원 전담창구 'Korea Desk' 설치
말레이시아	아세안 진출 교두보 확보	제3국 할랄시장 진출 협력 추진, 국부펀드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아세안 시장 진출

❸ 신남방지역과의 협력 기반 강화

- **(공적개발원조(ODA))**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산업화 역량제고**(개도국 애로기술 지도, 표준·인증체계 보급 등), **효율적 에너지 공급**(에너지 자립섬) 등 지원 강화

-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18년 타결목표), **한-아세안 추가자유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 등을 통한 시장접근 개선과 상생협력 촉진

□ 이후, 김 본부장은 통상교섭 자문위원들과 산업부 발표 안건 내용을 포함하여 국제 **통상환경의 격변기**에 **우리 통상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신현우 사무관(☎ 044-203-5623), 미주통상과 조진화 사무관(5651), 동북아통상과 조아라 사무관(5694), 한미FTA대책과 구진경 서기관(5651), FTA정책기획과 이선혜 서기관(5741), 신남방통상과 김진수 서기관(57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통상교섭본부장 모두 발언

1.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먼저, 각 자의 분야에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을 수락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금번 4기 자문위원회에는
서비스업, 소비자 등 새로운 관점에서
통상정책을 조명해 줄 위원님들이 다수 보강되었습니다.
활발히 자문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최근 통상환경과 대응방향

세계 경제와 통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를 기점으로
EU,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인도, 터키, 러시아 등 주요국들은
관세 부과와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의 자동차 232 조사와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가 세계 통상질서의
Game Changer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8,000억불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있습니다.

또한, EU와는 EU 자동차 수입관세 10%의 일방적 인하를,
캐나다, 멕시코와는 NAFTA의 신속한 타결을,
일본과는 양자 FTA를 통한 시장접근 개선을,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추격, 지역패권 견제까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장기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철강 232 타결로
미국과의 관세 보복 소용돌이에서는 한발
빗겨나 있지만,

글로벌 자유무역의 퇴조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로 성장해 온
국가들에게는 구조적 위기(systemic crisis)를
초래할 수 있음을 통상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232 조사,
그리고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전개상황과 영향을 판단하면서,
철저히 실리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자동차 232조는
미측 의사결정 관련 핵심인사(Key person)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이번주 아웃리치에서도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한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보다 큰 것을 얻는
긍정적 자세로 대응해야 합니다.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오히려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통상환경 악화를 정면 돌파해 가겠습니다.

3. 통상정책의 방향

과거 80년대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로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가 주춤할 때,
우리는 두 산업에서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 시장 진출로
틈새를 파고 들었고,
오늘날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통상환경의 흐름을 냉정히 읽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열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선, 통상마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범용제품, 즉 가격으로 경쟁하는 제품은 통상공세의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7년 미국의 반덤핑 신규조사의 약 90%가
철강, 금속, 화학, 섬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온 우리 주력 수출 상품들 또한
통상 마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기술 집약형
고부가가치 Star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만
통상 마찰의 무풍지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주력산업 전반에
AI, Big data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고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예로서, 자동차 경쟁력의 중심이 과거 엔진기술에서
차량용 시스템반도체, 스마트 센서 등
IT 기술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런 분야를 새로운 수출주력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또한, 정밀의료,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이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 분야도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Star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견인할
새로운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혁신형 기업들이 창출되고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통상팀에서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바이어 발굴, 무역금융, 마케팅 지원 등
시장개척 전주기 걸친 지원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테마섹, 무바달라와 같은 주요국 국부펀드들이
우리 혁신기술들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채널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4강 수준으로 키워가겠다고 했습니다만,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역 현황을 시장별로 살펴보면,
자원은 중동, 핵심기술은 일본에 의존하면서
중국, 미국 시장의 성장에 기대 온
수출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높은 경제성장률, 중산층 급증으로
글로벌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Mercosur 등 신흥국에서
우리 수출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과 동등 또는
유리한 경쟁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들과의 기존 FTA 개선과 함께
수년내 전세계 GDP의 약 90% 수준까지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FTA를 통한 관세장벽 해소와 함께
각 국가의 발전단계, 시장특성,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실질적인 시장진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①대미통상 현안 등 대응방향, ②주요 FTA 추진계획,
③신남방 통상정책 방향 등 3가지 안건을 준비하였습니다.

각 분야를 대표하여 모이신
위원님 여러분들이 가감 없는 자문의견을 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